

‘붉은 악녀들’

김 은 남 / 시사저널 문화팀장

영락없는 오피스 걸 복장을 한 20대 여성 네 명이 돛자리 하나를 우산 대신 머리에 받쳐 쓴 채 필씩필씩 뛰고 있다. “대~한민국”을 연호하며, 맞은편 분수대 근처에 앉아 대형 전광판을 지켜보던 아줌마 두 사람은 한국 선수가 골을 넣는 순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며 괴성을 질러댄다. “짜~” “끼악~” 다음 순간, 그 중 한 아줌마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뒤집어진다. “근데 골은 누가 넣었데?” 장대비가 퍼붓는 가운데 한·미간 축구전이 벌어지던 지난 6월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진 광경이다.

이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여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 No.3가 군대 얘기, No.2가 축구 얘기, No.1이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는 것은, 웬만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여성들은 이번 월드컵 기간 동안 TV 시청률을 끌어올린 일등 공신이다.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에 비해 여성들의 축구 시청률은 15% 가까이 상승했다. 길거리 응원도 더 말할 것도 없다.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하지만 길거리 응원시 거리에서의 체감 비율은 7:3으로 여성들의 비율이 더 높다. 교복 치마에 태극기를 오려붙인 여중생에서부터 얼굴에 ‘코리아 파이팅’이라는 문신 스티커를 새긴 중년 여성에 이르기까지, 그 구성도 제각각이다.

이들이 갑자기 축구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니면 정색하고 보니 축구가 새삼 재미있어서? 그도 아니면 우리의 안정환을 비롯해 데이비드 베컴, 마이클 오웬, 누노 고메스 같은 그라운드의 꽃미남들

을 보는 재미로? 아마 그렇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필자가 생각하기에 따로 있다. 그것은 재미있기 때문이다. 신명이 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바람나는 거대한 집단 놀이판에 여자가 주도적으로 끼여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의 길거리 응원 문화를 놓고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표출하기도 했다. ‘광기’라느니 ‘집단 히스테리’라느니 하는 시각이 그것인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빨간옷을 입지 않고 등교했다가 왕따를 당했다는 아이들의 얘기는 그런 우려를 더해 주었다. 그렇지만 필자는 나치즘에 사로잡힌 독일 군중이나 홀리건 같은 광기어린 집단과 한국의 길거리 응원단을 구별짓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바로 여성의 참여였다고 생각한다.

힘있는 성인 남성들로 구성되었던 기존 집단과 달리 이 집단에서는 일방적인 선동이나 폭력이 먹이지 않았다. 여자·청소년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오히려 주축이 된 길거리 응원단은 각자 자유롭고 창의적인 태극기 패션으로 무장한 채 즐거움을 마음껏 발산하며 개국 이래 최대의 카니발을 자발적으로 연출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자긍심과 일체감은 월드컵이 안겨준 최고의 수확이다. 길거리 응원단이 보여준 성숙한 질서 의식과 평화적 태도는 정부가 백날천날 강조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붉은 악녀’들은 한국 사회에 새로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 보인 셈이다. **▶▶▶▶▶**